

40, 50대 성인의 인지연령과 신체이미지 평가

장은주 · 유화숙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Cognitive Ages and Body Images of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Eun Ju Jang and Hwa Sook Yoo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bstract : Anti-ageing is one of the key words to have characterized Korean society, and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word. In this study, their cognitive ages and body images which are expect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anti-ageing were determined and correlation between them was examined. A survey was conducted and 368 of 50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through SPSS 1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ages of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showed to be 37.5 years old which are 9.1 years old younger than their average actual ages. Second, their attitudinal body images appeared to be composed of appearance orientation and appearance evaluation, and appearance orientation represented to be a little higher than appearance evaluation.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ges and the attitudinal body images was low and negative. Thir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revealed to think good health and impression as ideal body images. It was found that they regarded a face as the most important body part for ideal body images and were sensitive of their weight. Forth,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ges and variables of ideal body images was identified to be significant in 4 variables which are slender, shapely and slim figure and good body proportions. In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recognized themselves to be 9.1 years old younger and, the younger they perceive themselves, the younger body images they want. Also, it could be confirmed that anti-ageing is a megatrend in Korean society.

Key words: anti-ageing,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cognitive age, body image.

1. 서 론

늙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불로장생이란 없지만 젊게 늙고 싶은 항노화(anti-ageing)라는 인식이 세대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젊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젊은 신체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나 이를 얻기 위해 현대인들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40,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 관리에 적극적이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으로 20, 30대 젊은이 못지않은 감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안이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과 신체에 대한 중년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40, 50대 중년층의 산업현장에서의 은퇴시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노년층으로의 편입시기를 늦추어 개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년

층의 항노화를 조성하고 있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실제연령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을 인지연령이라고 한다(Stephens, 1991). 인지연령은 자아개념의 하나로 실제 자신의 연령보다 자신을 젊게 또는 많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9, 임채연).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항노화 사회에서 40, 50대의 인지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젊음의 욕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항노화라는 특성은 실제 연령과는 구분되고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인지연령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한 사회를 이끄는 핵심 세대인 40, 50대에게는 외모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동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동안', '몸짱' 등의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강하고 젊은 신체는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 경험으로부터 형성하게 되는 신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며 이로써 개인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신체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생각, 신념, 평가의 기준이 변하면 신체이미

Corresponding author; Hwasook Yoo
Tel. +82-52-259-2735, Fax. +82-52-259-2888
E-mail: uhwas@ulsan.ac.kr

지도 변하게 되므로(김해진, 2003) 40, 50대의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특성은 그들의 신체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0, 50대 성인들의 신체 이미지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선호되는 신체이미지나 그 기준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도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개인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Fallon, 1990). 홍금희(2006)에 따르면 최근 우리사회의 이상적 미의 기준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마른 몸매의 신체이미지라고 한다. 이는 서구적이면서 젊은 외모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그와 같은 신체를 갖기 어려운 40, 50대 중년들의 체중조절, 외모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비행동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노화 열풍의 중심에 있는 40, 50대들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젊음에 대한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인지연령을 알아보고 인지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이미지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첫째, 40, 50대 인지연령을 조사하고 둘째,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조사하며 셋째, 인지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상적 신체가 되기 위한 요건, 중요 부위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를 조사하고 다섯째,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지연령

인지연령(cognitive age)이란 자아개념의 하나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을 말한다(임채연, 2009). 따라서 자신을 젊게 인식하면 낮게, 늙게 인식하면 본인의 연령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예전에 비해 더 길어진 수명은 개인들에게 더 젊고 건강하게 영위하는 삶을 갈망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는 더욱 더 젊음 지향 사회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젊어지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연령을 생물학적인 연령보다 젊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실제연령보다 인지연령이 젊게 나타나게 되는데, 인지연령이 작다는 것은 젊게 살아가고자 하며 노화에 대한 저항이 크고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 연령은 개인의 태도, 사고 및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개인의 행동양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인지연령을 다루는 연구들은 적절한 측정방법을 찾는 것에 서부터 시작하였다. 인지연령의 측정방법으로는 첫째, 단일 차원적 형태의 척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지연령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하였다. 둘째는 형용사를 이용한 어

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통해 인지연령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인지연령을 감성, 외모, 행동, 관심 등 4차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응답자 자신이 지금 몇 세인 것처럼 느끼는가(감성연령, feel age), 본인이 몇 세로 보이는가(외모연령, look age),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어느 연령대와 비슷한가(행동연령, do age),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주로 어느 연령대의 관심사인가(관심연령, interest age)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Barak & Schiffman, 1981). 이러한 네 가지 연령의 평균을 통해 인지연령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 방법은 응답자의 이해와 답변에 어려움이 없으며,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개념 측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인지연령의 측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Guiot (2001)는 인지연령이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아닌 주관적으로 믿는 젊은 느낌 또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단순히 자신이 얼마나 젊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것만큼 정확한 측정방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경희, 이윤정(2010)은 60,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4차원의 구성법으로 인지연령을 측정하였는데, 응답자들의 76%가 실제연령보다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윤유경(1996)의 연구에서도 인지연령을 측정해 본 결과, 인지연령은 실제연령보다 30대에는 평균 5.12세, 40대에서는 5.46세, 50세에서는 9.17세, 60대 이상에서는 13.4세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홍성태 외(2007)는 30대~50대를 대상으로 인지연령과 소비행동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인지연령이 소비행동의 상당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40, 50대들은 스스로를 젊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연령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2.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적 자아의 지각이다. 그러므로 이는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자아존중감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Engel et al., 1995).

신체이미지는 크게 신체의 지각적 면을 다루는 지각적 신체 이미지와 신체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태도적 신체이미지로 구분된다.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자기우울감, 섭식장애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김해진, 2003; Thompson et al., 1995). 의류학 분야에서는 Secord & Jourard(1953)에 의해 개발된 신체만족도가 지각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왔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며 자아존중감, 의복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Keeton et al., 1990). 측정도구로는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 외모 및 체중 관심, 신체만족도, 체형변형 욕구 등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이미지는 신체의 감각과 기능, 능력에 대한 지각경험과 신체를 매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사회의 복합된 심리적 경험의 산물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신체에 대한 인지와 정서가 응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ead, 1920). 그러므로 항노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은 이전과는 다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것으로 고려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ash(1990)도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다차원적이며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에 의한 외모관리에 따라 개인의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경자(1998)의 연구에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양 차원(감정적/행동적)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수록 신체에 대한 관심, 열중,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얻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성영신, 1997)이므로 개인이 신체를 바라보는 방법과 신체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달라진다. 즉,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가족 또는 사회 전체의 이상적인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형성되는데 지금과 같은 항노화사회에서는 젊음이 이상적 신체미의 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40, 50대 성인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도 바뀌었을 것으로 보여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항노화 사회에서의 젊음에 대한 욕구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수연 외(2010)는 한 문화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기준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여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형성되는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때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간의 차이가 크면 신체불만족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aiser(1990)도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가 가까울수록 높은 신체만족도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수경, 고애란(2004)도 개인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실제적 신체이미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아향상 욕구에 따라 외모향상 추구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게 되며,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자이존증감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와 같이 항노화 사회에서는 젊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여러 방법과 대안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최후의 방법인 성형수술은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향한 수단으로 그 적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의류학 분야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특성에 비중을 두고 이상적 신체부위별 중요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실시되었는데 김용주(1999)의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 추구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해서 얼굴 생김새보다는 전체적인 몸매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승희 외(2001)의 한국과 미국여성의 바디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여성은 주로 신체의 하체부분을 가꾸고 한국여성은 얼굴부분을 많이 가꾼다고 하였다. 김해정(2004)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이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위는 얼굴, 하체, 키 몸무게, 상체, 복부 순으로 나타나 얼굴부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항노화 사회에서 40, 50대가 갖는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예전과 다를 것으로 추측되며,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되기 위한 요구조건과 주요 신체부위 등도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3. 항노화 사회

현대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평생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관리하면 극복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젊게 늙고 싶은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는 항노화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항노화(anti-ageing)는 원래 1980년대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회제도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9%이하로 줄이자는 캠페인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나이들어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후 건강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소비트렌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신승철,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항노화를 외모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노화를 지연하여 젊게 보이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노화의 속도와 수명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이고 강력한 건강 위협인자중의 하나이다. 현재 노화는 예방 가능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많은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항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계속 급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호르몬이 1990년 이후에는 노인들의 항노화를 위한 치료제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년들의 젊음을 유지하는 항노화 역할을 하는 성인용 성장호르몬제로써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민승기, 2009). 또한 한 화장품회사에서는 항산화 기능이 강한 신물질들을 개발하고 이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항노화기능을 크게 향상시킨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였다(박도제, 2010). 이처럼 의학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에서도 항노화에 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전문가들은 외모 관련 산업, 여가, 레저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 ‘노화연구의 실용화 전망과 과제’를 위한 포럼에서는 2015년에 전 세계 항노화 시장이 336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이지연, 2009) 정부 또한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황노화 시장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항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관심 타겟층에 있어 다른 세대보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 회복과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은 40~50대들은 항노화와 관련되어 대부분의 제품 또는 상품의 주된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고령화사회”, 2007).

3. 연구방법

3.1. 용어 정의

3.1.1. 인지연령(cognitive age)

자신의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이며 실제 자신의 연령층보다 자신을 젊게 또는 많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3.1.2. 태도적 신체이미지(attitudinal body image)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 행위 및 평가를 말한다.

3.1.3. 이상적 신체이미지(ideal body image)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체이미지로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한다.

3.1.4. 항노화(anti-ageing)

외모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노화를 지연하여 젊게 보이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 가려는 것을 말한다.

3.2. 측정도구의 구성

3.2.1. 인지연령

인지연령은 Barak & Schiffman(1981)과 Wilkes(1992)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즉 인지연령은 나는 마치 내가 (세)인 것처럼 느낀다(감성연령, feel age), 나는 마치 내가 (세)인 것처럼 보인다(외모연령, look age), 나는 마치 내가 (세)인 것처럼 행동한다(행동연령, do age), 나는 마치 내가 (세)인 것처럼 생각한다(생각연령, think age)의 네 가지 영역 질문에 대해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4 영역의 연령을 평균하여 인지연령으로 나타내었다(부경희, 2005; 홍성태 외, 2007)

3.2.2. 태도적 신체이미지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1994년 Thomas F. Cash가 개발한 신체이미지 척도(MBSRQ)를 사용한 정진애(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12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2.3. 이상적 신체이미지

이상적 신체이미지 평가는 신재은(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키(cm), 몸무게(kg), 허리둘레(inch)에서 이상적 치수와 실제 치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이상적 신체이미지 고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8부위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3.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201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40, 50대 중년 남성과 여성 5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1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울산을 포함한 대구, 서울에 거주하는 40,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가 배부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68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254명(69.0%), 50대가 114명(31.0%)이며 성별은 남자가 128명(34.8%), 여자가 240명(65.2%)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3.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0, 50대의 인지연령,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인지연령과 신체 이미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상적 신체이미지에서 중요한 신체부위 순서 파악을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인지연령

40, 50대의 인지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연령의 구성요소인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생각연령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평균하여 인지연령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0, 50대 인지연령은 37.5세로 실제 연령의 평균인 46.6세보다 9.1세 정도 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발표된 홍성태 외(2007)의 연구에서 40, 50대 인지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평균 8세 젊게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대	254	69.0
	50대	114	31.0
	계	368	100
성별	남자	128	34.8
	여자	240	65.2
	계	368	100
학력	중졸이하	17	4.6
	고졸/ 전문대졸	214	89.1
	대졸이상	134	5.4
	기타	3	0.9
	계	368	100
결혼	미혼	18	4.9
	기혼	345	93.7
	기타	5	1.4
	계	368	100
직업	전문가	60	16.3
	기술직	28	7.6
	사무직	45	12.2
	판매/서비스	61	16.6
	전업주부	120	32.6
	무직	6	1.6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11	3.0
	단순노무	9	2.4
	기타	28	7.7
	계	368	100

Table 2. 조사대상자의 실제연령과 인지연령의 평균값 (N = 368)
(단위 : 세)

실제연령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생각연령	인지연령
46.6	35.8	39.4	37.6	37.1	37.5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가 시행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1세 증가한 9세 인 것으로 나타나 젊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연령이 자신을 젊게 또는 늙게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재 한국사회의 항노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지연령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감성연령이 35.8세로 가장 작아 실제연령보다 11살이나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연령이 39.4세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금희(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외모연령을 다른 인지연령의 구성 연령들보다 자신의 실제 나이와 가장 비슷하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감성에 비해 외모연령이 높게 나와 40, 50대 성인들은 감성연령과 외모연령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들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모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성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자신의 외모 또는 신체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4.2. 신체이미지

4.2.1. 태도적 신체이미지

40, 50대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는데, 요인 1은 '패션소품이 내 옷차림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늘 신경쓴다', '외출 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 '나는 나의 걸모습을 더 멋있게 보이려고 늘 노력한다' 등의 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모의 중요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므로 외모지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5.0, 설명비율은 41.7%였으며, 신뢰도는 .864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 '나의 외모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등의 4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며, 신체에 대한 평가 및 만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므로 이 요인은 외모평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3, 설명비율은 11%, 신뢰도는 .647로 나타났다.

태도적 신체이미지 관련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Table 4), 문항 중 '외출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외출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외출 시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바쁜 사회활동으로 인해 외출 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이미지 점수가 높다는 것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거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모지향과 외모평가 두 요인의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외모지향 요인은 3.16인데 반해 외모평가는 2.97로 나타났다. 두 요인의 값이 모두 긍정 또는 부정의 값에 치우치지 않았으나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응답자들이 외모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40, 50대가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은 신체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술발전에 따른 수명연장은 중년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하고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중년 삶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두 요인 모두 매우 긍정적이지도 매우 부정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많지만 4, 50년 삶 속에서 나이가 드는 것을 수긍하는 관조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거나 둘째, 전통적으로 외모를 중시하지 않았던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라 현재의 외모 중시 경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지향 또는 외모관심과 같은 태도를 갖지 못할 수도 있으며, 셋째, 생애 한가운데

Table 3. 태도적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태도적 신체이미지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량(%)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 외모 지향						
나는 나의 패션소품이 내 옷차림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늘 신경을 쓴다.	.778				3.07	.903
나는 내 모습이 최고로 보이게 하는 옷을 사려고 신경을 쓴다.	.738				3.26	.890
외출 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	.725				2.65	.892
외출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다.	.717	5.0	41.7	.864	3.72	.735
나는 나의 걸모습을 더 멋있게 보이려고 늘 노력한다.	.666				3.14	.77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거울로 내 모습을 살펴본다.	.659				3.22	.840
내가 언제나 남에게 멋지게(예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647				3.19	.889
나는 나의 머리 스타일을 보기 좋게 하려고 특별히 관리한다.	.578				3.04	.864
요인 2 : 외모 평가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	.802				2.97	.898
나의 외모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716	1.3	52.7	.647	2.88	.757
사람들은 내가 멋지다고(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698				2.87	.828
나는 내 옷이 내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을 좋아한다.	.359				3.17	.911

Table 4. 인지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간의 상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외모지향	-.180**
외모평가	-.185**

** : p<0.01

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령층이므로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젊어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나타내는 인지연령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외모지향과 외모평가 두 요인 모두 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여 인지연령이 낮은 사람, 즉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는 젊음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항노화 특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성이 강화 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외모의 중요성이나 관심은 커져 갈 것이고 젊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므로 젊게 보이기 위한 노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40, 50대 성인들은 뷰티, 헤어, 패션 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며 이들과 관련된 사업과 시장이 확장, 발전될 것으로 짐작된다.

4.2.2. 이상적 신체이미지

40, 50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이미지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구성요건을 알아보았다(Table 5). 그 결과,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미지로 40, 50대가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은 건강한 몸이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평

Table 5.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구성요건

순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평균	표준편차
1	건강한 몸이어야 한다.	4.22	0.675
2	인상이 좋아야 한다.	4.18	0.763
3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	3.99	0.615
4	탄력 있는 몸매여야 한다.	3.98	0.688
5	비율이 좋은 몸매여야 한다.	3.77	0.840
6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여야 한다.	3.69	0.737
7	볼륨감이 있어야 한다.	3.67	0.736
8	날씬한 몸매여야 한다.	3.63	0.845
9	적당히 근육이 있어야 한다.	3.62	0.796
10	키가 커야 한다.	3.61	0.889
11	얼굴이 예뻐야 한다.	3.51	0.895
12	마른 몸매여야 한다.	2.63	0.923

균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상이 좋아야 한다가 4.18,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가 3.99, 탄력 있는 몸매여야 한다가 3.98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중 마른 몸매여야 한다는 2.6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40, 50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는 우선 건강하고 인상이 좋으며 균형과 탄력이 있는 몸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좋은 인상이어야 한다가 얼굴이 예뻐야 한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상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다음국어사전, 2010). 따라서 40, 50대 성인들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서 눈, 코, 입 등의 이목구비가 잘생긴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 50대 성인들이 이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 그 형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치수를 물어보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신체 치수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본인의 치수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키, 몸무게와 허리둘레

Table 6. 이상적인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평균값

	성별	키(cm)	몸무게(kg)	허리둘레(inch)
이상적인 신체치수	남	177.9	68.8	31.1
	여	165.4	52.0	26.3
실제 신체치수	남	171.1	69.4	32.5
	여	160.0	56.3	28.5

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남자의 이상적 신체치수는 신장 177.9 cm, 몸무게 68.8 kg, 허리둘레 31.1 inch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이상적 신체치수는 신장 165.4 cm, 몸무게 52.0 kg, 허리둘레 26.3 inch로 나타났다. 이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차이는 키에서는 남자가 6.8 cm, 여자가 5.4 cm로 나타났고 허리둘레의 경우 남자가 1.4 inch, 여자가 2.2 inch 차이가 있었다. 몸무게에서는 여자는 4.3 kg, 남자의 경우 0.6 kg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키와 허리둘레에서는 남녀차이가 크지 않았다. 몸무게에서는 남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 몸무게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자는 몸무게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0, 50대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Table 7). 가장 중요한 부위로는 얼굴로 나타났고 다음은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이, 어깨, 팔순으로 나타났다. 얼굴과 키를 1순위로 매긴 사람이 전체의 84.5%로 이상적인 신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얼굴과 키를 제일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재은(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얼굴이 1순위, 다음이 다리, 허리, 가슴, 키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20대 뿐 만 아니라 40, 50대 모두 얼굴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순위로 20대는 현재 노출 패션의 유행으로 인해 다리를 중요시 하였으며 40, 50대의 경우, 키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시대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변하므로 젊게 인식하는 것이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요인들 중 날씬한, 부드러운 곡선의, 마른, 비율이 좋은 등과 유의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적 신체이미지에서 마른 몸매여야 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날씬한, 부드러운 곡선의, 마른, 비율이 좋은 몸매가 인지연령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

Table 7.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해 중요한 신체부위의 순서 (n=368)

신체부위	얼굴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이	어깨	팔
평균순위	2.09	3.30	3.96	4.26	4.35	5.47	5.88	6.48
순위	1	2	3	4	5	6	7	8

Table 8.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 구성요건간의 상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불름감이 있어야 한다.	-.078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	-.043
건강한 몸이여야 한다.	-.088
날씬한 몸매여야 한다.	-.150**
키가 커야 한다.	-.045
적당히 근육이 있어야 한다.	-.014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여야 한다.	-.129*
탄력 있는 몸매여야 한다.	-.083
마른 몸매여야 한다.	-.127*
비율이 좋은 몸매여야 한다.	-.144**
얼굴이 예뻐야 한다.	-.085
인상이 좋아야 한다.	-.032

*: p<0.05, **: p<0.01

Table 9.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 치수와 실제 신체치수 차이간의 상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키 차이	.027
몸무게 차이	-.179**
허리둘레차이	-.072

** : p<0.01

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40, 50대 성인의 몸매에서 벗어나 젊은이의 신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젊은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로 인식하고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와 인지연령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Table 9)에서는 키와 허리둘레차이에서는 상관이 없었으나, 몸무게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현재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항노화’이다. 누구나 젊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중심세력이면서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중년으로 진입하는 40, 50대들은 그 누구보다 항노화에 관심이 많고 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항노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지연령과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0, 50대의 인지연령을 측정해 본 결과, 인지연령은 평

균 37.5세로 나타나 실제 연령의 평균인 46.6세보다 9.1세 정도 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연령의 구성연령 중에서는 감성연령이 가장 작아 실제연령보다 11살 젊게 인식하였으며 외모연령이 39.4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40, 50대 성인들은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항노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들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외모지향과 외모평가 두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에 비해 외모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 40, 50대 성인들이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인지연령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 인지연령이 작을수록 즉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건강하고 인상이 좋으며 탄력 있고 균형 잡힌 신체로 이상적인 신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 50대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부위는 얼굴이고 다음은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이, 어깨, 팔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신의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키는 실제보다 크고 허리둘레와 몸무게에서는 실제보다 작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허리둘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몸무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차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년의 신체로 보기 보다는 젊은 신체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젊은 신체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지연령이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키와 허리둘레차이에서는 상관이 없었으나, 몸무게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신체의 어떤 형태적인 특성보다는 살이 찢는지 또는 안 찢는지를 갖고 젊은 신체이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의 40, 50대들은 자신의 인지연령을 9살 정도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감성연령에 있어 11살이나 젊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신을 '열 살 이상으로 젊게 느낀다' 는 의미이므로 이들과 관련된 상품 기획이나 생산시 이들의 실제 연령보다는 10세 아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지연령은 감각적 경험으로 형성된 주관적 심상인 신체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신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더구나 40, 50대의 태도적 신체이미지 중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한 뷰티, 패션, 운동 등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이상적 신체이미지에서도 '건강하고 인상이 좋으며 탄력과 균형이 잡혀야 한다' 가 가장 중요하였고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중요부위 1위가 얼굴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모관리행동 중에서도 성형은 앞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눈, 코, 입 등에서의 보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측면에서의 성형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 이미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고자하는 욕구가 클수록 젊은 신체를 지향한다고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젊음을 지향하는 경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젊은 세대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지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인지연령과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에서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마른 신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 또는 섭식장애등을 유발 할 수 있어 성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 간에 차이가 생기면 자아존중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 잡지 또는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연령집단에 따른 건강한 신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젊은 신체가 마른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두루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항노화 현상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자신을 젊게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40, 50대는 감성으로 느끼는 젊음을 이 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표현하려 할 것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보이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가 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므로 이들의 신체적인 특징에 잘 맞고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 뷰티 및 성형 등 외모 관련 산업, 레저 또는 스포츠 등에서 이들의 젊은 인지연령과 신체 이미지 등을 고려한 마케팅활동과 광고 및 판촉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이 분야의 시장성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수명연장으로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40, 50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40대와 50대가 동일비율이 아니고 3개 도시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결과를 한국 40, 50대 성인 전체의 결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더구나 항노화 경향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

고 있어 앞으로는 연령대를 좀 더 넓게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젊음에 대한 욕구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지연령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척도가 개발된다면 보다 정확한 향노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신체이미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인지연령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관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령화 사회 ‘향노화’ 아이템이 뜬다. (2007, 1. 19). *한겨레신문*. 자료검색일 2011, 1. 2, 자료출처 <http://www.hani.co.kr/>
- 김수연, 이혜영, 고애란. (2010). 가슴성형 경험자의 성형동기와 성형 후 평가이상적 신체이미지 내면화를 통한 의복 소비행동의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34(5), 740-753.
- 김용주. (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행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정. (2004). *외모관리 : 자기에게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진. (2003). *신체이미지에 따른 신체 관리행동*.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음국어사전. (2010). 자료검색일 2011, 6. 23, 자료출처 <http://krdic.daum.net/dickr>
- 민승기. (2009, 10. 5). ‘향노화’성장호르몬으로 노인들도 젊음 유지. *메디컬투데이*. 자료검색일 2010, 6. 25, 자료출처 <http://www.mdtoday.co.kr>
- 박도제. (2010, 4. 4). 한국콜마, 슈퍼 향노화 신기술 세계 최초 개발. *헤럴드 경제*. 자료검색일 2010, 6. 25, 자료출처 <http://biz.heraldm.com>
- 부경희. (2005). ‘젊은 오빠’ 인식 : 인지연령 인식이 노인세대의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6(1), 37-66.
- 성연신. (1997). 소비자 광고속의 신체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31-62.
- 송경자. (1998).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철. (2009, 6. 16). ‘향노화’ 패러독스.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10, 6. 25,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
- 신재은. (2008). *여자대학생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 : 의복관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경, 고애란. (2004). 여교생의 신체 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 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189-203.
- 이승희, 김재숙, Rudd, N. A. (2001). 한, 미 여성의 이상적 미, 바디이미지와 외모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69-980.
- 이지연. (2009, 10. 26). 2015년 향노화시장, 336조원으로 급증전망. *메디컬투데이*. 자료검색일 2010, 6. 25, 자료출처 <http://www.mdtoday.co.kr>
- 임채연. (2009). *노인연령적 특성과 인지연령에 따른 여가활동과 실버타운 선호요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애. (2004). *광고모델 신체이미지 비교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희, 이윤정. (2010). 60대~70대 여성 소비자의 인지된 연령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및 패션 정보원 활용. *한국의류학회지*, 34(2), 200-211.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 홍금희. (2010). 차이연령에 따른 감각추구 성향과 패션 탐색적 행동. *한국의류학회지*, 60(1), 43-55.
- 홍성태, 강동균, 김미준. (2007). 인지연령 :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 분석. *소비학연구*, 18(3), 63-86.
- Barak, B., & Schiffman, L. G. (1981). Cognitive age: A nonchronological age variable.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8(1), 602-606.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Orlando: Dryden Press.
- Fallon, G. (1990). Culture in mirror : Sociocultural determinants of body image. In T.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s*. New York: Guilford.
- Guiot, D. (2001). Antecedents of subjective age biases among senior women. *Psychology & Marketing*, 18(10), 1049-1071
- Head, H. (1920). *Studies in Neurology*. Vol. 2.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In T.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s*. New York: Guilford.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ed.). NY: Fairchild.
- Keeton, W. P., Cash, T.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 of Personality Assessment*, 54(2), 213-230.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37-347.
- Stephens, N. (1991). Cognitive Age: A useful concept for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20(4), 37-48.
- Thompson, J. K., Covert, M. D., Richards, K. R., Johnson, S., & Caltarin, J. (1995)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 J. Eat disord.* 18(3). 221-236.
- Wilkes, R. E. (1992).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measurement and meaning of cognitive 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2), 292-301.

(2011년 3월 28일 접수 / 2011년 5월 12일 1차 수정 / 2011년 5월 12일 게재확정)